

Session 1 Why Four Gospels? Their Unique Purpose and Message

제 1 강 복음서는 왜 4 개인가? 각각의 목적과 메시지

I. THE HOLY SPIRIT GAVE US FOUR DIFFERENT VIEWS OF JESUS IN THE GOSPELS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4 가지 시각을 보여주고 계신다

- A. Each of the four Gospels have many things in common—describing Jesus’ movements in ministry along with His teaching, miracles, death, and resurrection. Each gospel has a unique purpose and message, though the four together do not provide a complete biography of Jesus’ ministry.

각각의 4 복음서는 서로 많은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 기적들,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를 완벽히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각 복음서는 특별한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 B. In Matthew, Jesus is presented as the *Son of David*—thus as the King of Israel.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즉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 C. In Mark, Jesus is shown as the *Servant of God*—the leader who took on the form of a servant.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즉 종의 모습이신 지도자를 보여주고 있다.

- D. In Luke, Jesus is seen as the *Son of Man* (humanity)—connected yet contrasted with fallen man.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인성), 즉 타락한 인간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이들과 대비되는 분을 보여주고 있다.

- E. In John, Jesus is revealed as the *Son of God* (deity)—connected with the Father and His family.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성), 즉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II. THE FOUR FACES OF THE LIVING CREATURES

네 생물의 네 얼굴

- A. John saw four living creatures around the throne of God (Rev. 4:7)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을 목격했다 (계 4:7)

⁷*The first living creature was like a lion, the second...like a calf, the third living creature had a face like a man, and the fourth living creature was like a flying eagle. (Rev. 4:7)*

⁷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 4:7)

- B. *Matthew* corresponds with the face of a *lion*: The King of Israel. The lion is the king among beasts.

**In this session, I have drawn much from AW Pink’s book titled “Why Four Gospels?” 이 강에서는 많은 부분을 아더 핑크의 책, “Why Four Gospels?” 에서 인용했다.*

번역: 노아 미니스트리 (<http://noahministry.org>)

마태복음은 사자의 얼굴에 해당된다: 이스라엘의 왕. 이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이다.

- C. *Mark* corresponds with the face of a *calf* (ox): The servant leader. The ox is known as an animal of service and sacrifice. This points to Jesus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마가복음은 송아지의 얼굴에 해당된다: 종된 리더. 이 송아지는 섬김과 희생의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다.

- D. *Luke* corresponds with the face of a *man*: The Son of Man. This corresponds with Jesus' humanity.

누가복음은 인간의 얼굴에 해당된다: 인자(인간의 아들). 이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한다.

- E. *John* corresponds with the face of the *eagle*: The Son of God. The eagle soars highest among birds.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얼굴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아들. 이 독수리는 모든 새들 가운데 가장 높이 난다.

III. THE MESSIAH AS THE BRANCH OF THE LORD

가지(작)이신 메시아

- A. Matthew's gospel emphasizes Jesus as the King.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⁵“...*I will raise to David a Branch of righteousness; a King shall reign...*” (Jer. 23:5)

⁵ ...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 (렘 23:5)

- B. Mark's gospel emphasizes Jesus as God's servant.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임을 강조하고 있다.

⁸“*For behold, I am bringing forth My Servant the Branch.*” (Zech. 3:8)

⁸ ... 내가 내 종 짝을 나게 하리라 (슥 3:8)

- C. Luke's gospel emphasizes Jesus' humanity.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

¹²“*Behold, the Man whose name is the Branch!*” (Zech. 6:12)

¹² ... 보라 짝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 (슥 6:12)

- D. John's gospel emphasizes Jesus' deity.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²*In that day the Branch of the Lord shall be beautiful and glorious...* (Isa. 4:2)

² 그 날에 여호와의 짝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 (사 4:2)

IV. THE GOSPEL OF MATTHEW: THE SON OF DAVID AND KING OF ISRAEL

마태 복음: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

- A. Jesus as the Son of David is heir of Israel’s throne—He is the rightful king of the Jews.

다윗의 아들이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보좌를 이어받을 분이다 – 그분은 합법적인 유대인의 왕이다.

- B. Matthew presents Christ as the One who fulfilled the Old Testament promises and prophecies related to Israel’s Messiah. The word “fulfilled” occurs in Matthew fifteen times, and there are more quotations from the Old Testament in Matthew than in the other three Gospels combined.

마태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연관된 구약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마태복음에는 “성취하심”에 대한 단어가 15 번 나오며, 다른 모든 복음서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구약의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다.

- C. Jesus is presented as King—This is seen twelve times.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12 번이나 나타나고 있다.

- D. Matthew’s first sentence gives us a key to the book (Mt. 1:1). David is the only king in the genealogy who is called “king” (Mt. 1:6). Notice that David is called king twice in one verse!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 마태복음의 핵심을 알려준다 (마 1:1).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왕으로 불린 유일한 사람이다 (마 1:6).

¹*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⁶and Jesse begot David the king. David the king begot Solomon by...the wife of Uriah. (Mt. 1:1, 6)*

¹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 ⁶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KJV 흠정역: 다윗 왕은)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 1:1, 6)

- E. Just as “son of David” connects Jesus with Israel’s throne, so “son of Abraham” connects Him with Israel’s land. Abraham was the one to whom the Lord initially gave the land. This is the only place in the New Testament where the land is called “the land of Israel” (Mt. 2:20-21).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분임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분을 이스라엘 땅과 연결시켜 준다. 주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마태복음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그 땅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말하고 있다 (마 2:20-21).

- F. Matthew opens with the visit of the wise men from the East to worship the Christ Child, and the wise men inquire, “Where is He that is born King of the Jews?” They were not asking about a savior, but rather the King of the Jews. Mark, Luke and John do not mention this event.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온 사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묻는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구원자가 어디 있냐고 묻지 않았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마가와 누가, 요한은 이 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G. Matthew speaks of the disciples being sent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Mt.10:5-6).

마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어진 것을 말한다 (마 10:5-6).

- H. Only Matthew mentions the seven parables of the kingdom (Mt. 13).

오직 마태복음만이 천국(왕국)에 대한 7 개의 비유를 말하고 있다 (마 13 장).

- I. Only Matthew mentions “Jesus’ throne of glory” in His millennial kingdom (Mt. 19:28; 25:31) and that all nations will be gathered to Him as the King (Mt. 25:31-40).

오직 마태복음만이 천년왕국에 있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마 19:28; 25:31), 왕이신 그분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마 25:31-40).

²⁸“Assuredly...in the regeneration, when the Son of Man sits on the throne of His glory, you who have followed Me will also sit on twelve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Mt. 19:28)

²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 19:28)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He will sit on the throne of His glory. (Mt. 25:31)

³¹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 25:31)

- J. Matthew alone mentions the parable of the wedding feast of the King’s Son (Mt. 22:2).

오직 마태복음만이 왕의 아들의 잔치에 대한 비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마 22:2).

- K. Only Matthew mentions the sevenfold rebuke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Mt. 23).

오직 마태복음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 가지 꾸짖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마 23 장).

- L. In Matthew, it was the guilty Jews who cried, “His blood be on us and on our children” (Mt. 27:25)

마태복음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한 사람은 죄 지은 유대인이었다 (마 27:25).

- M. Matthew ends without any mention of the ascension, but with Jesus’ declaration that “all power had been given to Him” (Mt. 28:18)—power is one of the primary distinctions of a king.

마태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언급하지 않고 끝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라는 선포와 함께 끝난다. 권세는 왕에게 있는 특별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¹⁸And Jesus came and spoke to them, saying,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¹⁹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²⁰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Mt. 28:18-20)

¹⁸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 ²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V. THE GOSPEL OF MARK: THE SERVANT OF GOD—SERVANT LEADERSHIP

마가복음: 하나님의 종 – 종된 리더십

- A. Mark’s gospel focuses on Jesus as a servant. This explains why Mark did not mention a genealogy, the miraculous conception, the birth and wise men, or Jesus in the temple at age twelve. Why? This part of the life of Jesus did not fall within the main purpose of Mark. It also explains why there are more miracles recorded in Mark than any of the other gospels.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 되심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마가가 왜 그분의 계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기적적인 잉태와 탄생,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12 살 때에 성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이다. 이 부분들은 마가가 예수님의 삶에서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마가복음에 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많은 기적들이 언급되어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 B. In Mark, there are no rebukes to Israel and the Pharisees as in the other Gospels and no mention of Jesus cleansing the temple. Notice the omission of many of Jesus' divine titles from this gospel. In Mark, Jesus is not mentioned as King (except in derision). He is called "the Son of David" once.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처럼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며,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도 나오지 않는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으신 것에 대한 많은 호칭들이 나오지 않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왕으로 언급되지 않으며 (조롱할 때 빼고), 그분은 딱 한 번 "다윗의 아들"로 불리신다.

- C. Mark begins abruptly compared to the lengthy introductions in Matthew, Luke, and John.

마태나 누가, 요한 복음이 긴 서두를 가진 것에 비해, 마가복음은 곧바로 스토리를 시작한다.

- D. A term occurring often in Mark's gospel is the Greek word *eutheos*, which is variously translated "immediately" or "at once." This word is over forty times in Mark's Gospel. There was no holding back, reluctance, or delay as Jesus did the Father's work. This word tells of the prompt nature of His service as well as the urgency He felt concerning His mission.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헬라어 "유세오스(*eutheos*)"이며, 이는 "곧" 또는 "곧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 40 번 이상 나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 그 어떤 주저함이나 지연됨을 보이지 않으신다. 이 단어는 그분이 즉각적으로 섬기시는 부분을 말해주며, 예수님이 자신의 임무에 대해 느끼던 긴급함을 또한 나타내준다.

²⁰And immediately He called them, and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 in the boat with the hired servants...²¹Then they went into Capernaum, and immediately on the Sabbath. (Mk. 1:19-21)

²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²¹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한글 KJV: 곧장)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막 1:19-21)

- E. Mark mentioned Jesus' *hand* related to His service more than the others (Mk. 1:31, 41; 5:41; 7:32; 8:22-25; 9:27). In this, we can see the power, kindness, and tenderness of His hand and touch!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섬기신 일에서 다른 어떤 부분도 그분의 손에 대해 언급한다 (막 1:31, 41; 5:41; 7:32; 8:22-25; 9:27).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손과 만지심에 있는 능력과 친절하심, 또한 부드럽게 대하심을 볼 수 있다!

VI. THE GOSPEL OF LUKE: THE SON OF MAN—HUMANITY

누가복음: 인자 – 인성

- A. Luke's gospel deals with Jesus' humanity, presenting Him as the "Son of Man" instead of as the Son of David or the Son of God. This theme connects Christ with the whole earth.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말하며, 그분을 다윗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자”로 부른다. 이 주제는 그리스도를 전 세계와 연결시켜준다.

- B. Luke gives us the fullest account of His birth. Luke traces Jesus’ genealogy to Adam (Lk. 3), and he emphasizes Jesus as a friend of sinners (Lk. 7:34, 15:2; 19:7) and as a man of prayer (Lk. 3:21; 5:16; 6:12; 9:28-29; 11:1; 5-8; 18:1-8; 22:31-32; 22:41,44; 23:34).

누가는 그분의 탄생과 관련된 전체 스토리를 보여준다. 누가는 예수님의 계보를 말할 때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며 (눅 3 장),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이심을 강조하며 (눅 7:34, 15:2; 19:7), 그분이 기도하신 것 또한 강조하고 있다 (눅 3:21; 5:16; 6:12; 9:28-29; 11:1; 5-8; 18:1-8; 22:31-32; 22:41,44; 23:34).

- C. Luke presents Jesus as subject to human circumstances, as seeking the lost (Lk. 15), weeping over Jerusalem (Lk. 19:41), showing compassion, eating food with people (Lk. 7:36; 11:37; 14:1; 19:7; 24:30, 42, 43). He also emphasized the role of women in Jesus’ ministry (Lk. 8:1-3).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으시며 (눅 15 장),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며 (눅 19:41), 자비를 보이시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면서 (눅 7:36; 11:37; 14:1; 19:7; 24:30, 42, 43) 인간적인 환경을 겪으시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 여성들이 가지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눅 8:1-3).

- D. Only Luke called the place of Jesus’ death by its Gentile name—*Calvary* (23:33). Luke wrote, “A superscription was written in letters of Greek, Latin, and Hebrew,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23:38). This hints at the international scope of this gospel! Matthew and Mark do not record the “superscription” written in the world-languages of the day because it was not within their scope.

오직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를 이방 이름인 갈보리로 부르고 있다 (23:33).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한글 KJV, 그의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23:38).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국제적인 면을 볼 수 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때 쓰이던 언어로 “위에”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는 그들의 관심사 밖이었기 때문이다.

- E. Luke is the only one who records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showing His heart for people.

누가는 유일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 F. In Luke the One born is not called “The King of the Jews,” but *Savior of all people*. This title reaches out beyond the confines of Israel and takes in the Gentiles too.

누가복음에서는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지 않고, “온 백성의 구주”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한계를 벗어나 이방인들 또한 아우르는 호칭이다.

¹¹ *There is born to you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Lk 2:11)*

¹¹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 2:11)

VII. THE GOSPEL OF JOHN: THE SON OF GOD—DEITY

요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 신성

- A. John’s gospel presents Jesus as the Son of God and His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of God. John’s gospel emphasizes Christ’s divine glories. He is the Word “in the beginning” with God and is declared to be God. Notice how different John’s introductory statements are from the other gospels.

요한 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고 있으며,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지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요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며, 하나님으로 불린다. 요한 복음의 시작 부분이 다른 복음서와 얼마나 다른지를 주목하여 보라.

¹*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²*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³*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Jn. 1:1-3)

¹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²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³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 (요 1:1-3)

- B. As the Son of David and the Son of Man we see Jesus’ connection to the earth— but as the Son of God, we see His connection with Father in heaven. John described Jesus as dwelling “with God” before creation (1:1, 2),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1:14), the very “Son of God” (1:34).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과 인자가 되시는 부분에서 그분이 이 땅과 가지는 관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통해,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를 볼 수 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을 말하고 있으며 (1:1, 2), “아버지의 독생자”로 부르며 (1:14),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1:34).

- C. The theme of the deity of Christ is central as no other Gospel presents the Godhead of Jesus so clearly. Today many are drifting from Truth, so we must clearly and regularly present Jesus’ deity.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주제는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진리를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고도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⁹*For in Him [Jesus] dwells all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Col. 2:9)

⁹ 그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 2:9)

- D. Thirty-five times in this Gospel, Jesus speaks of God as “My Father.”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35 번이나 “내 아버지”로 부른다.

- E. Seven people affirm Jesus’ deity in this gospel—John the Baptist: (1:34); Nathaniel (1:49); Peter (6:69); Jesus Himself (10:36); Martha (11:27); Thomas (20:28) and John (20:31).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7 명이 증언을 한다. 이는 세례 요한 (1:34), 나다니엘 (1:49), 베드로 (6:69), 예수님 자신 (10:36), 마르다 (11:27), 도마 (20:28), 그리고 요한이다 (20:31).

- F. No parables are found in John’s gospel. Jesus taught in parables to conceal truth from those who had rejected Him. In John’s gospel, Christ is not concealing truth, but revealing God. A popular yet inadequate definition of Christ’s parables is *telling earthly stories with a heavenly meaning*.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거절하는 이들로부터 진리를 감추시기 위해 비유로 가르치셨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감추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비유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는 (적절치는 않지만), **이 땅의 스토리를 하늘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 G. Only John declared the following divine titles and statements—Jesus revealed as “the Word” (1:1) and declared to be the creator of all things (1:3);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1:14) and “the Lamb of God” (1:29); “the “Light of the world” (8:12); “the Bread of God who gives life to the world” (6:35); “Before Abraham was, I am” (8:58); “I and Father are One” (10:30).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14:9).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14:10).

다음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신성의 호칭과 설명들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1:1),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1:3),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1:14),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1:29), “세상의 빛”이시며 (8:12),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시며 (6:35),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8:58),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0:30).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14:9).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14:10).

- H. In the Sabbath controversy, John records a different reply—Jesus insisted on the right to do works of mercy on the Sabbath by appealing to having a higher authority, “My Father and I work” (5:17).

요한은 안식일 논쟁에서 색다른 응답을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더 높은 권세에 의지하여 안식일에 자비의 일을 할 권리가 있으심을 주장하셨다, “내 아버지와 내가 일한다” (5:17).

¹⁷Jesus answered them, “My Father has been working until now, and I have been working.”¹⁸Therefore the Jews sought all the more to kill Him, because He not only broke the Sabbath, but also said that God was His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Jn. 5:17-18)

¹⁷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¹⁸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요 5:17-18)

- I. Jesus is revealed as the great “I am” with a 7-fold fullness—“I am the bread of life” (6:35); “I am the light of the world” (9:5); “I am the door” (10:7); “I am the good shepherd” (10:11); “I am the resurrection” (11:25); “I am the way, truth, and life” (14:6); “I am the vine” (15:1).

예수님께서서는 7 가지 충만함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6:35), “나는 세상의 빛이라” (9:5), “나는 양의 문이라” (10:7), “나는 선한 목자라” (10:11), “나는 부활이요” (11:25),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6), “나는 참포도나무요” (15:1).